

국내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교과과정에서의 중국문헌 교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金 鎬**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국내 중어중문학 관련 선행 연구 검토: 판본과 목록의 관점에서
 - 1. 판본의 관점에서
 - 2. 목록의 관점에서
 - III. 『上窮碧落下黃泉, 動手動腳找資料』: 방법론으로서의 자료수집과 정리
 - 1. 叢書를 이용한 자료 수집과 의미
 - 2. 類書를 이용한 자료 수집과 의미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국내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중국어문학 관련 문헌이라는 주제를 따로 독립시켜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교수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다만 일부 학교에 따라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개설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전자의 경우는 아마도 중어중문학이라는 학문영역을 비교적 좁게

* 본 논문은 2011년도 성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성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의 교과과정에는 「중국문헌전제연습(Topics on Chinese Textsd)」, 「중국문헌학연습(Seminar in Chinese Philology)」: 현대 중국어 어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다만 교과내용으로 볼 때 본문에서 지칭하는 중국문헌 관련 교과과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에서는 「문헌학(중국의 고전을 통하여 오자 탈자 및 개

해석하여 어학과 문학이 아닌 경우에는 교수대상 혹은 연구대상이 아니라는 이해에서 비롯된 현상일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학문적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이 분야를 가르칠 전문 인력의 부족에서 기인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어문학 관련 문헌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없이 진행된 연구는 기초가 튼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종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나날이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작금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감안할 때 연구자들의 연구시야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폭 넓은 자료 수집과 정리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본문은 자료의 수집과 정리라는 측면에서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일부 연구 성과들의 부족한 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에서 중국어문학 관련 문헌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문은 먼저 판본과 목록의 관점에서 일부 국내 선행연구의 부족한 면을 살펴봄으로써 학문후속세대들에게 판본과 목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叢書와 類書라는 자료를 통해서 기초자료에 대한 수집과 정리가 창의적인 연구의 기초, 토대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좀 더 많은 연구자들과 학문후속세대들이 기초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넘 착오를 밝혀내고 판본과 내용 전반에 관하여 규명 연구한다)」과 「중국서지학(중국 서지학의 사적 고찰과 서지학 관계 주요 저술의 내용을 연구한다)」이 개설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대학원과정에서도 「동아시아문헌비교연구1,2」(중일어문학과 중일 비교문화전공)와 「중국문헌학연구」, 「중국서지학연구」(중일어문학과 중국문학전공)가 개설되어 있다. 이외에 성균관대학교와 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교과과정에는 문헌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문헌학 혹은 서지학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중국문헌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중국문학입문」이 그 예이다.

II. 국내 중어중문학 관련 선행 연구 검토 -판본과 목록의 관점에서-

1. 판본의 관점에서

흔히 版本이라하면 일반 연구자들 혹은 학문후속세대들은 매우 전문적인 연구영역으로 관련 연구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평생동안 판본학만을 연구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일반 연구자 혹은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판본학은 개인의 연구에 튼실한 기초를 마련해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성 학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교수자는 비록 전문적인 판본학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왜 판본이 중요한가를 학문후속세대에게 주지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판본학 지식을 교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적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종종 옥의 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약간의 국내 선행 연구 성과를 예로 들어 판본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국내 杜牧 관련 연구와 판본 문제

杜牧(803-852)은 小杜로 불리는 晚唐의 저명한 시인으로 그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杜牧에 관한 연구는 결코 적지 않다. 필자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두목 관련 연구에서 底本으로 삼고 있는 두목시문집이 무엇인지를 조사해본 적이 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두목관련 연구논문들은 《四部叢刊》本(明飜宋刻本《樊川文集》)이나(清)馮集梧의 《樊川詩集注》를 저본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²⁾ 그러나 한 가지 아쉬

2) 주요한 연구로는 김성문, 〈두목 「감회시」 試探〉, 《중국학연구》, 1990, 55-83쪽; 김성문, 〈두목시에 나타난 여성관 고찰〉, 《중국학》, 1992.11, 37-66쪽; 노재준 〈杜牧 詠物詩 初探〉, 《중국어문학논집》 7, 1995.6, 85-104쪽; 노재준 〈杜牧詩의 用韻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0, 1998.8, 81-95쪽; 이은정, 〈두목(杜牧) 칠언절구(七言絶句) 연구〉, 《중국어문학지》 18집, 2005, 33-69; 김준연, 〈晚唐 前期 古詩 창작 양상과 특징- 杜牧과 李商隱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33권, 2007.6, 207-235쪽; 김창경, 〈杜牧과 李商隱의 氣意論 比較 研究〉, 《중국어문논총》 39권, 2008.12, 235-262쪽 등을 들 수 있다.

운 것은 대다수의 국내 연구자들이 두목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의 하나인 조선 간본 《樊川文集夾註》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朝鮮刊本 《樊川文集夾註》는 杜牧의 시에 註를 단 고서로 현존 두목 詩集의 註釋本중 印出시기가 가장 이른 것이다. 즉 杜牧의 詩集에 註를 단 古書로는 (淸)馮集梧의 《樊川詩集注》(1798년 간행)가 대표적인데 刊行年度로 볼 때 《樊川文集夾註》는 조선 세종22년(1440)에 인출된 판본이 확인되는 까닭으로 《樊川詩集注》보다 350여 년이나 먼저 나온 주석서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樊川詩集注》가 《樊川外集》에는 주를 달고 있지 않은 반면, 《樊川文集夾註》는 《樊川外集》에도 註를 달고 있다. 또한 註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내용이 馮集梧의 《樊川詩集注》보다 더욱 상세하고 타당한 면이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樊川文集夾註》는 두목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본임에 분명하다. 특히 그 註속에는 현재 중국에서도 이미 전해지지 않는 귀중한 서적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³⁾. 동시에 이 문집은 역대로 그 전래가 희귀하여서 淸人이 고서에 대한 輯佚 작업을 할 때에도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古書의 輯佚작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중국에서는 遼寧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던 「明正統五年朝鮮全羅道錦山刊本」이 출판되어지고⁴⁾ 그 후에 상해고적출판사에서 출판된 《續修四庫全書》에 「明正統五年朝鮮全羅道錦山刊本」이 수록되면서⁵⁾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⁶⁾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樊川文集夾註》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근대

3) 예를 들어서 《十道志》, 《春秋後語》, 《盾甲開山圖》, 《五經通義》, 《三輔決錄》, 《魏略》, 《晉陽秋》 등이 수록되어 있다.

4) (唐)杜牧原著; 佚名氏注釋, 《中國公共圖書館古籍文獻珍本彙刊·朝鮮刻本樊川文集夾註》, 北京, 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1997.

5)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編, 《續修四庫全書·集部·別集類》第1312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6) 예를 들면 韓錫鐸의 〈關於《樊川文集夾註》〉(《遼寧大學學報》, 1984年)第4期), 楊焄의 〈論朝鮮刻本《樊川文集夾註》的文獻價值〉(《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04年)第3期, 135-139쪽), 吳在慶의 〈朝鮮刻本《樊川文集夾註》的文獻價值-從一條稀見的楊貴妃資料談起〉(《中國典籍與文化》第36期, 2001年)第1期, 65-70쪽), 郝艷華의 〈朝鮮刻本《樊川文集夾註》中所輯《十道志》佚文〉(《文獻》, 2004年)第1期)과 〈《樊川文集夾註》版本述略〉(《圖書館雜誌》, 2004年)第4期) 등이다.

의 저명 역사학자 李仁榮(1911-?)이 《清芬室書目》 권4에서 이 고서의 서지사항과 版本등을 소개한 이후로⁷⁾ 金學主가 〈杜牧의 『樊川文集夾註本』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 책이 杜牧詩 연구에 중시되어야 할 자료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⁸⁾ 이외에는 더 이상의 후속연구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아쉬운 것은 김학주의 연구가 1988년에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국내 두목 관련 연구에서 김학주의 주장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의를 끌지 못했다는 점이다. 만약 좀 더 이른 시기에 국내 연구자들이 《樊川文集夾註》라는 판본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국외의 학자들보다 더욱 앞서서 두목 연구에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국내 杜荀鶴 관련 연구와 판본 문제

杜荀鶴(846-904)은 晚唐의 저명한 시인으로 국내에서도 약간의 연구가 진행된 상태이다.⁹⁾ 먼저 국내 연구자들이 이용한 두순학 시의 底本을 살펴보면 《四庫全書》와 《全唐詩》에 수록된 두순학의 시집 《唐風集》이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四庫全書》에 수록된 《唐風集》 三卷은 (明)毛晉 「汲古閣」刊本 《唐風集》三卷을 底本으로 하여 필사한 판본이다. 그리고 《全唐詩》는 기본적으로 (明)胡震亨의 《唐音統籤》과 (清)錢謙益, 季振宜의 《唐詩》 稿本을 底本으로 하여 교감과 증보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판본이다. 이런 까닭으로 《全唐詩》에 수록된 《唐風集》은 「汲古閣」刊本 《唐風集》에 비해 逸詩九首와 詩二句가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唐詩》 稿本이 增補한 八首 이외에, 〈自江西歸九華〉(《唐音統籤》本 《杜荀鶴詩》에서 增補)가 포함되어 있으며 季振宜가 《唐詩》 稿本 《唐風集》에서 삭제했던 〈春宮怨〉까지도 모두 수록하고 있다. 編次에 있어서는 錢謙益, 季振宜의 《唐詩》 稿本과 같다. 이 점에서 볼 때 국내 두순학 연구에 있어 두순학 詩集의 底本 선택은 옳았다고 판단된다.

7) 李仁榮, 《清芬室書目》, 서울, 寶蓮閣, 1968, 224-225쪽.

8) 이 논문은 《書誌學報》 第22號(1988.12), 35-43쪽과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11-222쪽에 수록되어 있음.

9) 임원빈, 〈杜荀鶴詩歌의 現實性〉, 《중국연구》 43권, 2008.6, 245-259쪽; 임원빈, 〈杜荀鶴詩歌에 나타난 心理世界〉, 《중국어문논역총간》 특별호, 2005.8, 179-203쪽.

다만 아쉬운 것은 국내의 두순학 연구는 상술한 판본 못지않게 중요한 판본인 宋蜀刻本《杜荀鶴文集》에 대한 언급이 없다.¹⁰⁾ 이 서적은 비록 서명은 문집이지만 수록작품은 모두 詩이다. 동시에 수록 작품 수에서 「汲古閣」本《唐風集》과 비교할 때 「和吳太守罷郡山寸偶題」二首와 「送人遇亂相中」一首 등 3首의 시가 더 수록되어 있다. 반면에 「汲古閣」刊本에 수록되어 있는 「贈友人罷舉赴命」, 「閩中秋思」, 「傷硤石縣病叟」 등의 3首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판본원류의 관점에서 볼 때 宋蜀刻本《杜荀鶴文集》은 기타 판본이 南宋書棚本 계통에 속해 있는 관계로 교감학적 가치도 매우 높은 판본이다.¹¹⁾ 요컨대 송축각본《杜荀鶴文集》은 연구자들이 두순학시집을 연구할 때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3) 국내《四庫全書》 수록 자료의 이용과 판본 문제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데이터베이스화된 《사고전서》가 갖고 있는 자료 검색의 편리함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찾고 개개인의 연구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데이터베이스화된 《사고전서》를 이용하여 이전 연구자들에 비해 더욱 많은 새로운 사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사고전서》 자체가 갖고 있는 자료상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고전서》는 (淸)乾隆年間に 완성된 대형 총서이다. 다만 수록 도서가운데 청조에 반대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적들에 대해 銷燬, 刪削, 改易을 진행함으로써 종종 수록된 서적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동시에 필사본인 까닭으로 필사와 교감을 담당한 관원들의 부주의로 인해 脫字, 脫行, 缺葉, 缺卷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¹²⁾

예를 들어 《四庫全書·集部·別集類》에는 (宋)王質(1127-1189)의 《雪山

10) 이 고서는 현재 상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판한《宋蜀刻本唐人集叢刊》안의《杜荀鶴文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은 바로 상해도서관 소장 송축각본을 영인, 출판한 것이다.

11) 송축각본《두순학문집》에 관해서는 김호, 〈宋蜀刻本《杜荀鶴文集》版本考〉, 《書目季刊》36:4, 臺灣學生書局, 2003.3, 59-71쪽을 참조할 것.

12) 《四庫全書》의 缺失 문제에 대해서는 吳哲夫, 《四庫全書纂修之研究》,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90, 「第十章 四庫全書之缺失」, 276-302쪽 을 참조할 것.

集》이 수록되어 있다. 송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雪山集》은 三卷, 十二卷, 十六卷, 四十卷 등 총 4종류의 판본이 존재하였다. 그 가운데 三卷本과 四十卷本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十二卷本과 十六卷本은 모두 《四庫全書》를 편찬할 때 《永樂大典》에서 집록해서 얻은 輯本이다. 그 가운데 十二卷本은 四庫館臣이 《永樂大典》에서 집록해 낸 初輯本이며 동시에 四庫本 《雪山集》의 저본이 된다. 후에 「奉旨刪削」, 「任意刪削」 및 「次序改易」 등의 과정을 거쳐 수록편수가 감소하였으나 권수는 오히려 16권으로 늘어나 《四庫全書》에 수록된다. 또한 십육권본은 《武英殿聚珍版叢書》와 《四庫全書》에 수록됨으로써 더욱 널리 통용되었다. 그러나 초집본인 십이권본과 비교한다면 결코 足本이 될 수 없다.¹³⁾ 즉 《雪山集》을 이용할 경우에는 《四庫全書》本이 아닌 十二卷本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옳다는 의미이다.

또한 《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판본이 기타 판본과 비교할 때 선본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唐)權德輿의 《權載之文集》은 《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판본은 明嘉靖二十年劉大謨序刊의 十卷本이지만 五十卷本이 현존한다. 또한 (明)柯潛의 《竹巖集》도 《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판본은 三卷本이지만 十二卷本이 현존한다. 이런 까닭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四庫全書補正(經部, 史部, 子部)》(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5~)를 출판하여 《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판본과 기타 판본가운데 선본을 선별하여 비교, 고찰하고 있다.

즉 《사고전서》에 수록된 서적들은 내용상 문제가 있거나, 판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적지 않은 까닭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사고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판본이 유일본이거나 다른 판본에 비해서 가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전서》에 수록된 서적들을 연구의 底本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蘇洵의 《嘉祐集》이 좋은 예가 된다. 최재혁은 「四庫全書薈要本」과 「臺灣商務印書館本」으로 《사고전서》본을 교감하여 《사고전서》본 《嘉祐集》에 「인위적인 실수로 인한 오류」, 「판본 고증 미흡으로 인한 부실」, 「정치적 의도에 의한 개작·과기」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세 종류 판본의 원문간에 분명한 차이가 발견된 부분이 95곳이 있고, 심지어 《사고전서》

13)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호, 《〈四庫全書〉本 《雪山集》》, 《中國文學研究》 14, 臺灣大學中國文學系, 2000.5, 115-131쪽을 참조할 것.

본에는 문장을 심각하게 파기한 경우가 2편이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¹⁴⁾ 그러나 국내의 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연구에서 《사고전서》에 수록된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¹⁵⁾ 이런 현상은 경우에 따라 연구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향후 《사고전서》에 수록된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로 하다. 특히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는 상술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사고전서》의 검색시스템을 통해 풍부한 자료를 검색한 후에는 해당 자료를 판본적으로 우월한 해당 서적의 단행본 내용과 비교한 후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내 《說文解字》 연구와 판본 문제

《說文解字》는 중국문자학 연구와 교학에서 매우 중요한 서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1899년 갑골문 발견 이후 갑골문을 비롯한 고문자 연구가 중시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중국문자 연구가 이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說文解字》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여 적지 않은 선행연구가 있다. 하영삼은 〈韓國 歷代 《說文解字》 研究 綜述〉에서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說文解字》 연구를 개괄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說文解字》 연구와 관련하여 1954년부터 2010년 까지 발표된 총128편의 학술 논문을 주제별로 통론·판본·체례·서체·육서·부수·연구사·음운·문자이론·문화·域外 《說文》 研究·번역·교학 등 13가지로 나누면서 체례·연구사·서체·역외설문연구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연구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 《說文解字》 판본과 관련된 논문은 모두 9편(그 중 校勘논문이 7편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전체 연구의 7%를 차지하고 있다.¹⁶⁾

14) 崔在赫, 〈四庫全書『嘉祐集』試校〉, 《中國語文學論集》 27, 2004, 615-643쪽.

15) 《四庫全書》에 수록된 자료를 그대로 연구에 이용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적지 않다. 문제는 각 연구에서 인용된 《四庫全書》 수록 자료가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으로 본문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차후의 과제로 미룬다.

이로 볼 때 국내 《說文解字》 연구와 관련하여 판본 문제는 줄곧 중시를 받아 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說文解字》의 판본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먼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은 唐寫本으로 木部殘卷(188자, 전체 《說文解字》의 2% 정도)와 口部殘卷(12字)이 전해진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필사본의 존재로 인해 현재 통행되는 《說文解字》와 원래의 《說文解字》 사이에 내용상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동시에 후대의 《說文解字》 판본 역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小徐本」인 《說文解字繫傳》(주요 판본으로는 《四部叢刊》本(常熟錢曾述古堂影宋寫本)과 清道光十九年刻本이 있음)과 「大徐本」(주요 판본으로는 汲古閣本, 藤花樹本, 平津館本 등이 있음)이 대표적인 판본계통을 형성하며, (南宋)李濤의 《說文解字五音韻譜》 역시 「大徐本」의 개편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판본간에 내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학서적과 달리 字書에서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 때문에 국외에서는 《說文解字》 연구에 있어 판본에 대한 주의가 국내에 비해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특히 段玉裁가 《說文解字注》에서 《說文解字》 원문을 고친 것이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는 학계의 평가를 감안한다면 《說文解字》 연구에 있어서 판본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판본은 그리 어렵지 않으면서도 연구의 기초적인 수준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학문분야임을 알 수 있다. 즉 판본에 대한 부주의가 종종 연구 결과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2. 目錄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한 서적의 판본을 조사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바로

-
- 16) 河永三, 〈韓國 歷代 《說文解字》 研究 綜述〉, 《中國語文學》 56집, 2010.12, 179- 216쪽.
- 17) (清)譚獻은 《復堂日記》에서 唐筆寫本 木部殘卷에 대해 「予嘗言許書原本爲傳寫所訛奪者不少, 此唐本流傳僅當全書五十五分之一, 而異同之多如此. 徐氏二本所不逮, 亦有當用徐本訂正者. 字經三寫, 何能盡一? 是所望於好學深思矣.」라고 원래의 《說文解字》와 현존하는 《說文解字》 사이에 내용상 큰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목록이다. 우리는 목록을 통해 한 서적의 다양한 판본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후에는 비교분석을 통하여 수록 작품수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고 판본간 나타나는 異文 현상 등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에 이용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각 판본에 대한 실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때론 상상을 뛰어 넘는 연구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明)陸人龍의 《崢嶸館評定通俗演義型世言》이다. 이 고서는 명대 文言小說로써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줄곧 소장되어 오다 발견되어 학계에 알려진 것인데, 현재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유일본으로 明代 通俗小說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써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고서가 줄곧 《奎章閣圖書中國版綜合目錄》이라는 장서목록에 수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필자도 최근 우연한 기회에 국내에서 편찬된 고서 목록을 검색하면서 甲辰字本 (明)郭登의 《春秋左傳直解》가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郭登의 《春秋左傳直解》는 《明史·藝文志》와 《千頃堂書目》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四庫全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중국이나 대만에서 간행된 고서목록에서도 중국본 혹은 한국본 (明)郭登의 《春秋左傳直解》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갑진자본 《春秋左傳直解》는 상당히 중요한 문헌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예들은 목록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유용한 자료를 발견한 경우이다.

이전의 중국어문학 종사자들이 서적형태의 목록을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였다면 현재의 연구자들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형태가 바뀐 목록 즉 KISS, DBPIA, KERIS 등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선행 연구 성과를 검색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료를 검색하는 도구로서의 목록의 기능이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어문학 관련 연구에 있어서 국외의 목록(책의 형태 or 데이터베이스 형태)을 잘 이용하여 국내의 선행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국외의 관련 선행연구 성과까지도 수집, 정리할 수 있다면 해당 연구자의 연구 성과는 다른 연구자를 앞서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 목록이 갖는 학술적 중요성과 가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목록의 기능이 단순히 자료를 검색하는 수준에만 머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淸)王鳴盛은 《十七史商榷》에서 「목록학은 학문가운데 제일 중요

한 것으로 목록으로부터 道를 물어야 비로소 학문에 들어갈 문을 얻어 들어갈 수 있다(目錄之學, 學中第一緊要事, 必從此問道, 方能得其門而入.)」라고 목록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清)章學誠은 《校讎通義·敘》에서 연구자는 목록을 통해서 「학술을 구별할 수 있고, 그 원류를 고구하여 밝혀낼 수 있다(辨章學術, 考鏡源流)」라고 학술연구와 목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중국학술사에서 目錄學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발전하여 왔다.

아쉽게도 현재에 이르러 국내외를 막론하고 목록학은 점차로 상술한 자료를 찾는 도구성 학문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내 중국어문학계에서 중국 목록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도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목록을 연구 방법론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¹⁸⁾ 이런 현상은 목록학이 본래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홀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목록학이 갖는 적극적인 학술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⁹⁾

그러나 연구자들은 목록을 통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각 시대의 학술사상 혹은 문학의 발전과정을 고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漢書·藝文志》, 《隋書·經籍志》, 《郡齋讀書志》, 《直齋書錄解題》, 《四庫全書總目》 등의 「總序」, 「小序」 등의 내용을 통해 각 학문분야의 학술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總序」, 「小序」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각 학문분야의

18) 손민정, <목록을 통해 본 《이아(爾雅)》의 다중성 연구 - 13경과 소학서의 사이에서 -> 《중국어문학》 36, 2000, 283-302쪽; 박경희, <동양학, 고증인가 방법인가? : 고대 목록학에서 본 한, 위진남북조의 중국문학>, 《중국어문학지》 7, 2000, 183-205쪽 등은 목록을 통해 서적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문학사조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19) 물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면에는 중국 목록학, 판본학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인식전환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국 목록학 혹은 판본학 연구자들은 해당 학문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고서의 판본을 연구함에 있어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주로 형태서지학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며, 판본의 변화가 갖는 학술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다. 물론 모든 고서의 판본의 변화에 대한 학술사적 의미를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형태서지학적 관점(판식형태, 각공, 장서인 등)으로만 연구되는 판본학 연구는 오랜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 즉 판본연구에 있어서도 판본자체에 대한 형태서지학적 연구와 판본의 변화가 갖는 학술사적 맥락을 찾는 작업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변천과정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상술한 목록들의 「總序」, 「小序」는 현대적 의미로 볼 때 한 편의 간단한 학술논문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듯하다.

《四庫全書總目》은 아마도 국내 중어중문학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가장 자주 이용되어지는 목록일 것이다. 국내의 적지 않은 연구자들 특히 고전문학전공자들은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서적과 인물에 대한 소개나 평가를 할 때 종종 《四庫全書總目》의 내용을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국외에서의 《四庫全書總目》 이용은 이미 이 단계를 뛰어넘어 이 목록을 18세기 중국의 학술문화를 대표하는 저작²⁰⁾ 혹은 학술사 서적으로 평가하여 《四庫全書總目》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다.²¹⁾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이 상술한 관점에서 《四庫全書總目》을 조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²²⁾ 이 점은 학문후속세대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즉 향후 학문후속세대들은 《四庫全書總目》을 단순한 자료 검색용 공구서 혹은 개인의 연구 대상을 평가할 때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18세기 중국의 학술사상을 총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목록은 자료 검색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자료와 관점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국내 대학원 교육에서 목록이 갖는 학술사적 의미를 주지시키고 목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과 관점을 교수해야 함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20) 이 방면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周積明, 《文化視野下的四庫全書總目》, 廣西, 廣西人民出版社, 1991 을 들 수 있다.

21) 구체적인 내용은 侯美珍, 〈「四庫學」相關書目續編〉, 《書目季刊》 33:2, 1999.9, 77-129쪽; 陳曉華, 《四庫總目學史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8 등을 참조할 것.

22) 주요한 연구로는 金陽燮, 〈明末 泰州學派에 대한 清代 考證學者の 認識 - 『四庫全書叢目提要』의 書評을 중심으로 -〉, 《경희사학》 18, 1993, 181-215쪽; 이제우, 〈청대 『사고전서총목』을 통해 본 “만명소품”의 현상과 평가〉, 《중국학연구》 26, 2003, 251- 273쪽; 김호, 〈《四庫全書》와 《存目》에 수록된 한국인 저작과 그 문화의의〉, 《중국문학연구》 40, 2010.6, 201-223쪽 등을 들 수 있다.

Ⅲ. 「上窮碧落下黃泉，動手動腳找資料」

-방법론으로서의 자료수집과 정리-

학문의 길에 막 들어선 대학원생들에게 있어 논문이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논문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논문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을 통해 자신의 논문에서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아마도 연구 방법론일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수업시간이나 논문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논문을 작성하면서도 여러 가지 연구방법론이 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연구방법론에 있어 많은 경우 페미니즘, 구조주의 등의 서양이론에 경도되는 경향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서양이론을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장려를 해야겠지만 무분별하고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학문하는 방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서양이론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종종 기본적인 문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Text자체의 분석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근대 중국의 저명한 사학자 傅斯年이 말한 「上窮碧落下黃泉，動手動腳找資料」라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傅斯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를 함에 있어 자료의 수집에 최대한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연구 하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 비로소 창의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폭넓은 학문에 대한 요구는 중국 고대로부터 있어왔다. 일찍이 공자는 학문하는 방법에 대해

군자는 널리 고대의 문헌을 배우고 예로서 스스로를 단속해야 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²³⁾

라고 말했고, 공자의 제자인 顏淵은 공자가 확실히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은 가르쳤

23) 楊伯峻譯注，《論語譯注·雍也篇》，北京，1980，中華書局，63-64쪽.

음을 증명하고 있다.²⁴⁾ 위 인용문은 박학과 실천을 중시하는 공자의 교육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상술한 문장에서 禮는 실천적인 행위의 범주로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측면에서 볼 때 연구윤리를 지키면서 능동적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博學於文」에서 文의 성격이다. 「文」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일반적으로 詩, 書, 易, 禮 등 여러 경전의 문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道德, 仁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연구자는 능력이 되는 한 많은 문헌을 널리 배운 후에야 비로소 사물의 이치를 완전히 볼 수 있고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석, 박사과정에서는 풍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역시 학문후속세대들이 각자의 학위논문에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대 중국학계의 3대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甲骨文, 內閣檔案, 敦煌寫本の 발견은 물론이려니와 출토문헌의 발견으로 선진시기 사상사 연구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은 새로운 자료의 발견이 갖는 학문적인 영향력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출토문헌과 같은 이전까지는 전혀 접해보지 못한 자료를 발견하는 것만이 새로운 자료의 발견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에 이미 존재했지만 연구자에 의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연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도 새로운 자료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전의 연구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이용함으로써 연구 주제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광범위한 자료 수집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연구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2차 자료의 수집에 만족하지 말고 원전자료에 대한 수집과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의 중어중문학 연구자들은 KISS, DBPIA, KERIS 등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풍부한 2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국외의 자료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국의 경우는 「CNKI中國知識資源總庫(<http://www.cnki.net>)」

24) 《論語譯注·子罕篇》:「顏淵喟然歎曰:『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既竭吾才, 如有所立卓爾。雖欲從之, 末由也已。』」 90쪽.

를 이용하여 단편논문과 학위논문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대만의 경우는 「臺灣博碩士論文知識加值系統(<http://ndltd.ncl.edu.tw/cgi-bin/gs32/gswweb.cgi/ccd=s5eudw/webmge?Geticket=1>)」과 「臺灣期刊論文索引系統(<http://readopac.ncl.edu.tw/nclJournal/>)」을 이용하여 2차 자료를 검색, 수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東洋學文獻類目」 등을 이용해 2차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중어중문학과계의 연구현황을 고려할 때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원전자료에 대한 수집과 정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래에서는 叢書와 類書의 예를 들어 원전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연구시야의 확대와 창의적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1. 叢書를 이용한 자료 수집과 의미

叢書란 여러 서적을 모아 또 다른 서적을 만드는 것으로 《四庫全書》가 대표적인 예이다. 총서는 수록하고 있는 서적의 판본이 善本이 아닌 경우가 일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원전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총서에는 많은 유용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동시에 종종 희귀한 자료와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은 서적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연구자들은 총서를 통해 자신의 연구영역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질이 비슷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서를 편집할 경우 대개 수록하는 서적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하여 함께 묶어 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叢書集成初編》(商務印書館輯, 民國二十四年至二十六年(1935-1937) 上海商務印書館排印本)은 학술영역에 따라 수록서적을 「總類」, 「哲學類」, 「宗教類」, 「社會科學類」, 「語文學類」, 「自然科學類」, 「應用科學類」, 「藝

25) 張之洞은 《書目答問》에서 「총서가 학자들에게 가장 편리한 점은 한 부의 총서에 여러 서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잔질된 서적들을 수집 보존하니 그 공이 매우 크다(叢書最便學者, 爲其一部之中, 可該群籍; 蒐殘存佚, 爲功迂鉅)」라고 총서의 특색과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張之洞著, 呂幼樵校補, 張新民審補, 《書目答問校補》, 貴州人民出版社, 2004, 381쪽. 이외에 (清)黎庶昌, 楊守敬이 輯刊한 《古逸叢書》는 모두 27종 186권을 수록하고 있는데 모두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본에 남아 있는 서적들을 모아 수록한 것이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총서에 수록된 서적이 종종 매우 희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術類, 「文學類, 「史地類」 등 10가지로 분류하고 大類 아래에 小類로 다시 분류하여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²⁶⁾

아래에서는 현재 국내 중어중문학계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과 대만에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영역에 관련된 총서를 예로 들어 총서라는 기초 자료의 사용과 창의적 연구사이의 상관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중국과 대만에서는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16세기이래 천주교의 중국 전파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충돌과 영향이라는 연구주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이 분야의 일차적인 연구가 총서 자료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즉 연구자들은 (明)李之藻等編《天學初函》, 吳相湘主編《天主教東傳文獻》(臺北, 臺灣學生書局, 1965), 吳相湘主編《天主教東傳文獻續編》(臺北, 臺灣學生書局, 1966), 《天主教東傳文獻三編》(臺北, 臺灣學生書局, 1998) 등에 수록된 예수회 선교사들의 중국어 저작을 통해 이 연구영역에 접근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져서 《明末清初天主教史文獻叢編》(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1), 《耶穌會羅馬檔案館明清天主教文獻》(臺北, 利氏學社, 2002), 《中國宗教歷史文獻集成(三.東傳福音)》(合肥, 黃山書社, 2005) 등의 총서가 출판되어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연구자의 입장에서 상술한 총서들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 연구의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중엽은 중국에 있어 고대와 근대를 나누는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편전쟁을 계기로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중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된다. 동시에 동서의 문화가 중국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충돌하고 갈등과 융합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선진사상과 과학기술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보급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서적을 출판, 간행한다. 주의할 점은 번역서의 출판에 있어 단행본보다 총서 형태로 더욱 많은 번역서가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즉 서양의 자연과학, 공업기술을 번역한 총서들

26) 자세한 내용은 上海圖書館編, 《中國叢書綜錄》, 上海古籍出版社, 1986, 「總目」, 336-381쪽을 참조할 것.

이 대량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江南製造局譯書彙刻》은 이 분야의 대표적인 총서이다. 同治四年(1865)에 曾國藩, 李鴻章 등은 上海에서 “江南製造局”을 설립하고 2년뒤인 同治六年(1867)에 翻譯館을 설치하여 西方의 과학기술 서적을 번역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光緒末年에는 그 동안 번역한 서양서적들은 한데 모아 《江南製造局譯書彙刻》 154種을 출판하게 된다. 清末에 西方의 科學技術書籍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정부기구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江南製造局翻譯館”임을 감안할 때 이 총서에 수록된 번역서들은 정말 중국의 자강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 일부 현대문학 전공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만문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연구자들은 몇몇 대표적인 총서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臺灣文獻叢刊》(臺北, 臺灣銀行經濟研究室編印, 1957-1972)은 모두 309종의 문헌을 수록하고 있는데 역대로 대만과 관련된 지리, 역사, 풍속, 문학 등의 자료를 수록대상으로 한다. 특히 309종의 서적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시기적으로는 청대와 지역적으로는 대만과 관련된 詩文으로 대만 문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지리, 역사 관련 서적들도 대만문학사 및 대만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들이다. 《臺灣作家全集》(鍾肇政編輯, 臺北, 前衛出版社, 1991)은 1920-1990년 사이에 활동했던 대만의 주요 작가들의 단편소설을 수록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총서는 중국현대문학사가운데 대만 작가들의 창작경향과 수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자료이다. 《日據下臺灣新文學》(李南衡主編, 臺北, 明潭出版社, 1979.3)과 《光復前臺灣文學全集》(鍾肇政, 葉石濤主編, 臺北, 遠景出版社, 1979.7-1982.5)은 일제 점령시기에 창작된 소설, 시, 산문, 희곡 및 수필등 대만 신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외에 대만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의 개인전집 역시 총서의 형태로 출판되어 있다.²⁷⁾

요컨대 총서에 수록된 자료들을 잘 이용한다면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원전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시야와 연구범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7) 대만문학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헌에 관한 더욱 상세한 소개는 劉兆祐著, 《文獻學》, 臺北, 三民書局, 2007, 338-373쪽 을 참조할 것.

2. 類書를 이용한 자료수집과 의미

類書는 문헌을 「以字繫事」 혹은 「以類繫事」의 방식으로 수록하고 있는 서적이다. 「以字繫事」란 문구 혹은 서명의 처음 글자 혹은 마지막 글자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록하는 방법이고, 「以類繫事」는 문헌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편집하는 것이다.²⁸⁾ 비록 유서에 수록된 자료는 일부가 문제가 없지 않으나²⁹⁾ 여전히 고서에 대한 輯佚과 校勘 및 典故나 기타 사물의 출처 등을 검색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동시에 고전문학, 예술, 역사 연구 등에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輯佚방면에 있어서 《四庫全書》를 편찬할 때 명대 類書인 《永樂大典》으로부터 佚書 五百餘種을 집일해 내었는데, 그 가운데 薛居正的 《舊五代史》, 李燾의 《續資治通鑑長編》 및 《宋會要》 등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또 嚴可均의 輯한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 七百四十六卷 역시 대부분 《藝文類聚》 등의 類書에서 자료를 취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舊五代史》, 《續資治通鑑長編》, 《宋會要》,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 등의 자료는 현재 중국 사학과 문학 연구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자료가 되었다. 이점에서 볼 때 적극적인 유서 자료의 활용역시 연구범위와 연구시야의 확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조선 정조 시대에 조선에 유입된 類書 《古今圖書集成》이 당시의 학자들에게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예로 들어 유서자료의 이용이 갖는 학술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의 저명한 실학자 丁若鏞(1762-1836)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古今圖書集成》에 수록된 예수회 선교사 Johann Schreck(1576-1630, 鄧玉函)의著作 《奇器圖說》속의 기중기의 그림을 보고 이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어 華城

28) 일반적으로 「以類繫事」의 방법을 이용하여 편찬한 유서가 비교적 많다. (唐)歐陽詢編 《藝文類聚》, (唐)虞世南編 《北堂書鈔》, (宋)李昉等編 《太平御覽》, (宋)王欽若等編 《冊府元龜》, (清)陳夢雷等編 《古今圖書集成》 등이 모두 이 경우에 속한다.

29) 劉兆祐는 유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헌이 모두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을 첫째, 유서는 여러 사람에게 의해 편찬된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유서에서 문헌을 인용할 때 종종 원래의 문장을 고쳤기 때문이고 셋째, 많은 유서가 전 시대의 유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고 내용을 증가시키는 까닭으로 앞 시대의 유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후대의 유서도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文獻學》, 51-54쪽.

축조에 이용한다.³⁰⁾ 이외에 李奎景(1788-?)도 자신의 백과사전류 저작인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된 자료 다수를 인용하여 논리전개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규경이 《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한 상황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卷次	分類	篇名
1	卷四	典籍	圖書集成辨證說
2	卷四	典籍	四庫全書辨證說
3	卷八	邦國	東土九夷六部辨證說
4	卷二十五	雜器	螺甸辨證說
5	卷二十七	博物	物極生變辨證說
6	卷三十三	鳥獸雜說	鳥獸首尾奇偶辨證說
7	卷三十八	地理總說	萬國經緯地球圖辨證說
8	卷三十九	釋典總說	釋氏雜事
9	卷四十一	論史	西洋通中國辨證說
10	卷五十一	獸	狐仙辨證說

특히 이규경은 종종 《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된 내용으로 조선과 관련된 사실을 고증한다. 예를 들어 〈鳥獸首尾奇偶辨證說〉에서 이규경은 《古今圖書集成·朝鮮部彙考》의 내용을 이용하여 「東國이 靑丘이며 꼬리 아홉 달린 여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다(以東國爲靑丘, 則狐之九尾者, 出於我東地方耶).」라는 견해를 논증한다.³¹⁾ 〈螺甸辨證說〉과 〈狐仙辨證說〉 등의 내용도 모두 같은 범주에 속하는

30) 丁若鏞은 〈自撰墓誌銘〉에서 화성 축조에 썼던 起重架 제작의 경과와 성과에 대해 「厥明年壬子春, 鏞選入弘文館爲修撰, 赴內閣修廢和詩卷。四月先考捐館于晉州, 聞急至雲峰, 戴星旣月, 反柩于忠州。旣葬反哭于馬峴, 上數問存沒。是年冬, 城于水原。上曰己酉冬周橋之役, 鏞陳其規制, 事功以成。其召之, 使于私第條陳城制, 鏞乃就尹保約及柳文忠城說, 採其良制。凡譙樓、敵臺、懸眼、五星池諸法, 疏理以進之。上又內降《圖書集成·奇器圖說》, 令講引起重重之法。鏞乃作起重架圖說以進之, 滑車鼓輪, 能用小力轉大重, 城役旣畢。上曰:『幸用起重架, 省費錢四萬兩矣。』」(《丁茶山全書·詩文集·墓誌銘》卷十六, 首爾, 文獻出版委員會, 1960, 316쪽)라고 설명하고 있다.

31) 「鳥獸首尾奇偶辨證說」云:「靑丘, 海東地名, 《山海經·海外東經》。靑丘國, 其人食五穀, 衣絲帛。其狐四足九尾, 一曰在朝陽北。《大荒東經》, 大荒中, 有靑丘之國,

기록이다. 이런 사실은 《고금도서집성》에 실린 조선관련 자료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 이규경이 유서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은 학술적 성과를 잘 설명하는 것이다.

요컨대 국내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에서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유서의 가치와 효용을 설명하고 석, 박사 논문에서 유서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각자의 학위논문에서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IV. 나오는 말

본문은 국내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중국문헌 전반에 걸친 교육이 현재보다 좀 더 충실히 진행되어야 하는 원인을 문헌교육을 통해 연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동시에 국내에서 발표된 약간의 선행 연구 성과의 부족함을 판본과 목록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이를 방증하고자 했다. 물론 본문에서 언급한 일부 연구 성과들은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본과 목록 분야의 부족함이 자체의 연구 성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판본과 목록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보다 더욱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문은 叢書와 類書안에 수록된 자료들의 활용이 갖는 학술적 의미를 예로 들어 새로운 원전자료의 수집, 정리와 분석이 연구자의 연구시야의 확대와 창의적 연구에 기초, 토대가 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충실한 원전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학문후속세대의 학문방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하지만, 원전자료에 대한 정확하고도 깊이 있는 내용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본문에서 언급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정리의 의미도 많은 부분 퇴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원전 자료에 대한 충실한 수집과 정리

有狐九尾。《注》：太平則出而爲瑞，《圖書集成》載此條於《朝鮮部彙考》。以東國爲青丘，則狐之九尾者，出於我東地方耶。九頭鳥出見爲災，九尾狐出見爲祥，亦爲吉凶之對偶者，豈非考且神哉！」李奎景，《五洲衍文長箋散稿》，서울，東國文化社，1959，卷三十三，977쪽.

그리고 원전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국내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의 수업과 연구에서 더욱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 (唐)杜牧原著; 佚名氏注釋《中國公共圖書館古籍文獻珍本彙刊·朝鮮刻本樊川文集夾注》北京, 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1997
- (清)永瑢等撰《四庫全書總目》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 (清)章學誠《校讎通義》《叢書集成初編》71, 北京, 中華書局, 1985.
- (清)王鳴盛《十七史商榷》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清)譚獻《復堂日記》石家莊市, 河北教育, 2001
- (清)張之洞著, 呂幼樵校補, 張新民審補《書目答問校補》貴州人民出版社, 2004
- 楊伯峻譯注《論語譯注》北京, 中華書局, 1980
- 周積明《文化視野下的四庫全書總目》廣西, 廣西人民出版社, 1991
- 吳哲夫《四庫全書纂修之研究》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90
- 劉兆祐著《文獻學》臺北, 三民書局, 2007
- (朝鮮)丁若鏞《丁茶山全書》서울, 文獻出版委員會, 1960
- (朝鮮)李奎景《五洲衍文長箋散稿》서울, 東國文化社, 1959
- 김호 <<四庫全書>> 本 <<雪山集>> 《中國文學研究》14, 臺灣大學中國文學系, 2000.5
- 김호 <宋蜀刻本《杜荀鶴文集》版本考>《書目季刊》36:4, 臺灣學生書局, 2003.3
- 河永三 <韓國 歷代《說文解字》研究 綜述>《中國語文學》56, 2010.12

【中文提要】

本文旨在從中國文獻教育可以提高研究水平之角度, 試著探討在國內中文系研究所課程中加強中國文獻課程的必要性。本文首先從版本與目錄的角度, 說明在國內一些前人研究成果之不足, 藉此試圖證明在上述的論點。雖然本文所談及的一些前人的研究成果, 確實有版本或目錄方面的不足, 但是這也許不會影響到它們本身的研究水平, 不過, 假如相關研究者稍為關心版本或目錄方

面的問題，其研究水平一定會比現在更高。

其次，本文以叢書與類書的利用到底具有甚麼樣的學術意義為例，說明蒐集與整理新的原典資料，對於研究者擴大研究的視野和創新，何等重要。

最後，筆者希望研究生應該把蒐集與整理原典資料當作一個最重要的研究步驟與方法。同時，我們不能忘記的是，正確地分析並理解原典資料，才是研究中國語文學的不二法門。

【主題語】

文獻教育, 版本, 目錄, 叢書, 類書, 教科課程

투고일: 2011. 7. 14 / 심사일: 2011. 7. 20~8. 5 / 게재확정일: 2011. 8. 10